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6.385

JCCT 2024-11-49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활용역량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y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on Self-Efficacy

신은선* 박미마**

Eun-Sun Shin* Mi-Ma Park**

요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활용역량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에 소재하는 2개의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189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간호정보활용역량과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간호정보활용역량과 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간호정보활용역량, 자기주도학습능력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이었고, 설명력은 23.0%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간호정보활용역량이 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주요어 : 간호정보활용역량,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효능감,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self-efficacy of nursing information utiliz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The study involved 189 fourth-year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one region.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pril 24 and May 12, 2024.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information utiliz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information utilization and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self-efficacy, explaining 23.0% of the variance. This suggests that nursing students with high self-efficacy are good a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nursing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self-efficacy is required.

Key words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Efficacy, Nursing Stud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학교에서 학습한 실습과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습현장에서 배운 실제를 통합하여, 졸업 후 간호현장 실무에서 요구하는 전문직 간호사를 배출하는

*정희원,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제1저자)
**정희원: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8월 20일, 수정완료일: 2024년 9월 25일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5일

Received: August 20, 2024 / Revised: September 25, 2024
Accepted: November 5, 2024
**Corresponding Author: sonamu84@naver.com
Dept. of Nursing, Nambu Univ, Korea

것이다[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원격의료의 도입 및 컴퓨터를 활용한 진단기기 및 데이터 분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및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의 활용 등을 통해 보건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상자는 간호사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최신의 정보를 갖춘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를 요구하고 있다[2,3].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요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간호지식과 정보역량을 갖추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활용역량은 대학생이 습득해야 할 성과로 확인되어 영국, 미국 등의 대학도서관협회에서는 대학생의 정보활용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학의 교수전략 및 교육학습 부분으로 정보활용역량 표준 및 모델을 제시하였다[4,5]. 의료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직무의 변화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신 정보기술 활용을 의료인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빠른 회복을 위해 간호의 문제를 파악하고, 확인된 정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6].

변화함에 따라 정보화 시대는 임상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활용역량의 질 높은 간호 제공을 위해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최신 의료기술 활용 및 간호업무에 중요한 간호정보역량이 강조되고 있다[7].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정보활용역량과 정보자원이용, 비판적 사고성향[8], 문제해결능력[9], 업무수행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10]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간호학 학부교육과정에서부터 간호대학생의 정보활용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되며,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자가 교수자의 도움없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의 역할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목표계획, 그리고 도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인하여 적절한 학습방법을 선택, 활용하여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모든 과정 또는 이와 관련된 인성적 특성을 의미한다[11]. 임상실습 교육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임상실습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자신의 실습 요구에 따른 계획을 명확히 하고 목표를 세워서 실습활동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12]. 국내에서도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핵심간호술 수행능력, 자기효능감, 학습만족도[13], 감성지능, 자아탄력

성이 임상수행능력[14],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사고능력[15]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임상실습교육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학습능력은 임상실습 참여도를 높이고[16],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17].

임상실습 기간 동안 간호대학생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간호술기와 태도, 의료팀과의 팀워크, 환자 및 보호자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의사소통 기술 등을 습득하며 간호사 역할을 훈련한다[18]. 즉 임상실습은 간호 실무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대상자의 요구와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배우는 과정이다[19].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의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위한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향상은 임상실습의 성공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실천으로 이어지고, 수행해야 할 과제를 효과적으로 하는 동기부여를 유발한다[20].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호정보활용역량[8,9], 자기주도학습능력[10,13], 비판적 사고성향[15]등에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으나, 간호정보활용역량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활용역량,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효능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간호정보활용역량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간호대학생 스스로 임상실습에서 긍정적인 간호정보활용역량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정보활용역량, 자기주도학습의 개선 교육방안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간호정보활용역량,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간호정보활용역량,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 활용역량,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에 소재하는 2개의 간호학과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들이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는 중간효과크기인 .15, 검정력 .95로 하였다. 이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위생행위, 정보활용능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21]에 따라 일반적 특성 6개와 설명변수 2개를 포함한 예측변인 8개로 계산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160명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95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16부를 제외하고 총 189명의 설문지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간호정보활용역량

간호정보활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Jo[22]가 개발한 간호사 대상의 간호정보활용역량(NILC-KN) 도구를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조민정과 구미옥[10]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정된 도구는 문제구명 4문항, 정보원확인 5문항, 정보검색 4문항, 정보평가 5문항, 정보획득 및 관리 4문항, 정보통합 2문항, 정보윤리 2문항의 7개 영역,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정보활용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조민정, 구미옥의 연구[10]에서는 Cronbach's α 는 .87점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8이었다.

2) 자기주도학습능력

Bae와 Lee[23]가 개발한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적 영역의 학습과정관리

3문항과 학습결과평가 3문항, 정의적 영역의 학습동기 3문항과 자아개념 3문항, 행동적 영역의 학습활동의 지속성 3문항, 학습자원 이용·관리 3문항 및 학습환경조성 3문항의 7개 영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 et al[24]이 개발한 자기효능감척도(Self-efficacy Scale, SES)를 Hong[25]이 번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의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상당히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진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의미한다. Hong[25]에서 연구의 Cronbach's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일 지역에 소재하는 2개 간호학과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각 대학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연구보조원이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이때 설문조사를 자발적으로 중단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응답 후 바로 회수하였으며, 작성 시간은 평균 10-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간호정보활용역량,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효능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간호정보활용역량,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는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자 29명(15.3%), 여자 160명(84.7%)이었다. 연령은 평균 23.9세였다. 학과만족도는 만족한다 98명(51.9%), 보통이다 72명(38.1%), 불만족이 19명(11.6%)순으로 나타났다. 직전학기 성적이 3.5~3.9점 93명(49.2%), 3.0~3.4점 52명(27.5%), 4.0 이상이 39명(20.6%) 순으로 나타났다. 문헌검색교육에 있음이 86명(45.5%), 없음이 103명(54.5%)으로 많았다. 과제나 발표시 컴퓨터활용도에 대한 높음이 97명(51.3%), 보통 80명(42.3%), 낮음이 12명(6.3%)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필요함이 138명(73.0%), 필요하지 하지 않다 36명(19.0%), 보통이 15명(7.9%)순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9)

특성	구분	N(%)
성별	남자	29(15.3)
	여자	160(84.7)
연령	21~24	167(88.4)
	≥25	22(11.6)
	M±SD	23.9±3.3
학과만족도	불만족	19(10.1)
	보통	72(38.1)
	만족	98(51.9)
직전학기 성적	<3.0	5(2.6)
	3.0~3.4	52(27.5)
	3.5~3.9	93(49.2)
	≥4.0	39(20.6)
문헌검색교육	있음	86(45.5)
	없음	103(54.5)
과제나 발표시 컴퓨터활용도	낮음	12(6.3)
	보통	80(42.3)
	높음	97(51.3)
정보활용교육	불필요	36(19.0)
	보통	15(7.9)
	필요	138(73.0)

2. 대상자의 간호정보활용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효능감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정보활용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한 결과, 간호정보활용능력은 5점 만점에 4.11±0.76점, 자기주도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4.08±0.73점,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19±0.40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간호정보활용역량,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효능감 정도

Table 2. Degrees of Adjustment to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Self-efficacy (N=189)

변수	범위	M±SD
간호정보활용역량	1-5	4.11±0.76
문제규명		4.07±0.78
정보원확인		4.11±0.78
정보검색		4.14±0.78
정보평가		4.11±0.77
정보획득 및 관리		4.10±0.78
정보통합		4.18±0.78
정보윤리		4.13±0.78
자기주도학습능력	1-5	4.08±0.73
학습과정관리		4.07±0.78
학습결과관리		4.05±0.77
학습동기		4.02±0.80
자아개념		4.10±0.76
학습활동지속성		4.02±0.78
학습자원이용관리		4.16±0.75
학습환경조성		4.16±0.75
자기효능감	1-5	3.19±0.4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F=.673, p=.003), 과제나 발표시 컴퓨터활용도(F=.014, p=.04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학과만족도가 만족한 경우가 불만족한 경우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과제나 발표시 컴퓨터 활용도에서는 컴퓨터활용도가 높음이 낮음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그러나 성별, 연령, 직전학기 성적, 문헌검색교육, 정보활용교육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89)

특성	구분	N(%)	
		M±SD	t/F(p) Scheffé
성별	남자	3.15±0.32	-.642(.524)
	여자	3.19±0.42	
연령	21~24	3.20±0.43	.617(.770)
	≥25	3.17±0.35	
학과 만족도	불만족 ^a	3.15±0.39	.673(.003) a,b<c
	보통 ^b	3.15±0.33	
	만족 ^c	3.22±0.45	
직전학기 성적	<3.0 ^a	3.10±0.16	1.214(.306)
	3.0~3.4 ^b	3.13±0.35	
	3.5~3.9 ^c	3.18±0.37	
	≥4.0 ^d	3.28±0.55	
문헌검색교육	있음	3.17±0.37	-.361(.714)
	없음	3.20±0.43	
과제나 발표시 컴퓨터 활용도	낮음 ^a	2.94±0.33	2.411(.045) a<b,c
	보통 ^b	3.20±0.33	
	높음 ^c	3.21±0.46	
정보활용교육	불필요 ^a	3.19±0.42	.014(.986)
	보통 ^b	3.20±0.34	
	필요 ^c	3.18±0.41	

4. 대상자의 간호정보활용역량,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정보활용역량,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간호정보활용역량과 자기주도학습능력($r=.912,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간호정보활용역량과 자기효능감($r=.527, p<.001$)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능력($r=.524, p=.001$)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대상자의 간호정보활용역량,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self-efficacy (N=189)

변수	간호정보활용역량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효능감
	r(p)		
간호정보활용역량	1		
자기주도학습능력	.912(<.001)	1	
자기효능감	.527(<.001)	.297(<.001)	1

5.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값이 1.556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고, 독립변수 간 공차한계는 .673-.907로 0-1사이였고, VIF는 1.103-6.155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종속변수는 자기효능감을 투입하고, 독립변수로 간호정보활용역량, 자기주도학습능력,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 학과만족도, 컴퓨터활용도를 투입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회귀방정식의 모형은 적합하였으며($F=21.301, p<.001$), 모형의 설명력은 23.0%였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과만족도($\beta=.281, p=.004$), 컴퓨터활용도($\beta=.101, p=.021$), 간호정보활용역량($\beta=.337, p=.001$), 자기주도학습능력($\beta=.417, p<.001$)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Effects of self-efficacy (N=189)

변수	B	SE	β	t	p
(상수)	2.867	.192		4.935	<.001
학과만족도	.170	.481	.281	1.439	.004
컴퓨터활용도	.661	.521	.101	1.314	.021
간호정보활용역량	.197	.234	.337	3.963	.001
자기주도학습능력	.534	.328	.417	3.074	<.001
Adjusted $R^2=.230, F=21.301,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활용역량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정보활용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4.11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조은희, 황순정, 이주희연구[9]에서는 3.79점, 리메일링, 채여주, 하영미연구[8] 3.61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진주현, 김은희연구[14]에서는 4.05점, 박미마와 전도현의 연구[26]에서는 3.72점으로 모두 본 연구결과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나, 간호정보활용역량은 중등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간호정보역량은 간호과정 수행능력의 향상[27]과 근거기반 간호 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28,29] 간호대학생 시기에 함양해야 할 중요한 역

량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8, 14]를 보면 정보검색능력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컴퓨터나 모바일 사용이 많은 정보사회 시대를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4.09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조민정, 구미옥의 연구[10]에서는 3.74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구윤정의 연구[30]에서는 3.36점, 나은하의 연구[14] 3.69점, 정미현, 서요한, 문한나[31]의 연구에서는 3.74점 간호학과 2학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측정함 박미마의 연구[15]에서는 3.44점으로 모두 본 연구결과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정미현 등의 연구[31]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하위영역에서 학습동기와 학습활동의 지속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민정, 구미옥의 연구[10]에서도 학습활동의 지속성이 낮았으며, 구윤정의 연구[30]에서는 학습욕구 진단이 가장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기관이 서로 상이하어 실습환경이나 실습 분위기를 다르게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습기관의 문화적 분위기, 환경, 임상현장지도자,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 학교 강의실 분위기와 다른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실습교육이 이루어진다. 대상자의 건강상태, 응급 발생상황 등 병원환경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다양한 상황으로 변화한다. 강의실과 대비되는 현장의 역동적인 실습교육환경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속에서 실습의 흥미도 낮아지게 되어, 교육의 효과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실습기관의 조직된 사회문화 조직 및 임상현장의 분위기를 이해하여 실습교육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19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21] 3.45점, 손유림, 김금순, 조은하의 연구[13] 3.35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연구[15]에서는 3.54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중등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상실습 중에 대상자의 문제를 확인한 후 사정 조사하고 간호진단을 내리고 중재를 수행하여 평가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10], 간호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학습한 이

론적 지식을 현장에 적용할때 자신감이 부족하여 맡겨진 업무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강의실에서 술기 연습한 환경과는 다른 임상현장 상황에서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술기 등의 적용이 안전하지 못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19].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습득한 간호술기, 인간관계,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등과 관련된 실무중심의 교육훈련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임상실습시 대상자와 허용된 범위내 인간관계, 의사소통, 신체사정 등 강의실에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대상자에게 직접 적용해 보는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들에게 임상실습지도자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 과제나 발표시 컴퓨터활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과만족도가 좋은 경우 자기효능감이 좋았고, 자기효능감은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감으로 간호대학생의 주어진 학업, 과제 및 전문인으로 사회구성원 역할을 임상실습 중에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32].

본 연구에서 간호정보활용역량,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간호정보활용역량과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1]와 일치하였다. 간호정보활용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나타난 연구결과[10] 연구와 일치하였다. 간호정보활용역량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가 있는 연구[21]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간호정보활용역량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미국 대학연구도서관협회[33]에서 간호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평가하여, 유용한 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간호정보활용역량은 환자의 간호질 향상시키고, 근거기반실무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의 뛰어난 정보활용 할 수 있는 기술향상으로 교육의 일선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주도학습능력, 간호정보활용역량, 학과만족도, 컴퓨터활용도 순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학습능력과 간호정보활용역량을 잘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변수는 전체 변량의 약 2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보활용능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을 때 자기효능감으로 확인될 수 있다. 임상실습을 통해 개인의 임상실습경험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의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의 성취동기가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 심리적 변수와 관련이 있어 개인적 특성 및 성향에 따른 지도 및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아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으로 학과만족도를 이끄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일 지역에 소재하는 2개의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상자의 자료수집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전체결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여러 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간호정보활용역량과 자기주도학습능력 이외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에 대해 조사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Kang HJ, Kim JO, Kim HS, You SY, Choi SO, Hwang HM, "Effects of the Self observation method of Essential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confidence, and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9, pp. 227-241, 2016. DOI : 10.22251/jlcci.2016.16.9.227
- [2]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13).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nursing.[Internet].<http://www.ala.org/acrl/standards/nursing>
- [3] Solomons NM, Sprose JA, "Evidence-based practice barriers and facilitators from a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perspective: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19(1), 109-120, 2011
- [4]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00).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Internet].<http://www.ala.org/acrl/sites/ala.org.acrl/files/content/standards/standards.pdf>
- [5] Park HA. et, al.(2012). *Nursing Informatics*. Seoul: Hyunmoonsa.
- [6] Heye ML, Stevens KR. "Using new resources to teach evidence-based practi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8, NO. 6, pp. 334-339, 2009.
- [7] Chang J, Poynton MR, Gassert CA, Staggers N,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ies required of nurses in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Vol. 80, NO. 5, pp. 332-340, 2011.
- [8] Li M, Chae YJ, Ha YM, "Relationships between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5, pp. 247-255, 2018, <https://doi.org/10.14400/JDC.2018.16.5.247>
- [9] Jo EH, Hwang SJ, Lee JH, "Mediating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8, No. 2, pp. 51-63, 2024, <https://doi.org/10.34089/jknr.2024.8.2.51>
- [10] Jo MJ, Gu MO, "Convergence Study of Influence of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on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12, pp. 495-507, 2018, <https://doi.org/10.15207/JKCS.2018.9.12.495>
- [11] Candy P,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A Comprehensive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 [12] Levett-Jones TL, "Self-directed Learning: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or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Vol. 25, No. 5, pp. 363-368, 2005
- [13] Son YL, Kim GS, Cho EH, "A Study on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Self-efficacy on Learne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 6, No. 2, December 2018, pp.

- 1136-1146.DOI:<http://doi.org/10.15205/kschs.2018.1.2.31.1136>
- [14] Na EH,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7, No. 4, pp. 205-214, 2023.
- [15] Park MM, "Effects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urse Applying Blended Learning using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1, pp. 17-28, 2022 DOI : 10.22251/jlcci.2022.22.1.17
- [16] Kim EJ, Cho DS, "Learning contracts based self-directed clinical practicu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268-275, 2012. DOI: 10.5977/jkasne.2012.18.2.268
- [17] Park HS, Han JY,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0, No. 4, pp. 438-448, 2013.DOI:10.7739/jkafn.2013.20.4.438
- [18] Choi YJ, Lee GW, Jung CH, Lee AR,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and Rational Emotive Training on Communication Ability, Stress Coping Behavior,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8, No.2, pp.186-196, 2009.
- [19] Yang HK, "The Effect of Practical Education Environment And Practical Stress Percei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on Department Adapta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0, No. 2, pp.43-49, 2024.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43>
- [20] Kim HJ,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f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on Burnout",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4, No.8, pp.315-392, 2020. DOI:<https://doi.org/10.21184/jkeia.2020.12.14.8.315>
- [21] Jin JH, Kim EH, "The Influence of Hygiene Behavior, Information Literacy on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12 pp. 868-876, 2022.DOI:<http://doi.org/10.5762/KAIS.2022.23.12.868>
- [22] Jo MJ,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for hospital nurs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6.
- [23] Bae EK, Lee MY, "The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ventory for employees in HRD compani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12, No. 3 pp. 1-26, 2010.
- [24] Sherer M, Maddux J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 Rep* Vol. 51, No. 2, pp. 663-671, 1982.
- [25] Hong HY,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Ewha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5.
- [26] Park MM, Jeon DH, "The Effects of Action Learning Teaching-Learning Method on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formation literacy and Everyday creativ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3, No. 24, pp. 735-747, 2023. DOI : 10.22251/jlcci.2023.23.24.735
- [27] Kwak, SY, Kim YS, Lee KJ, Kim MY, "Influence of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ies and Problem-solving Ability on Nursing Performance Ability among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3 No. 2, 146-155, 2017. <http://dx.doi.org/10.5977/jkasne.2017.23.2.146>
- [28] Lee HJ, "Relationships among Information Resources Use,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and Evidence-based Practice in University Hospital Nurs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29] Park JE,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literacy, nursing process competency and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Kyung He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8.
- [30] Koo YJ, "Correlations among Self-directed Learning, Confidence of Performance in Core Nursing Skills,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9, No. 1, pp.501-511, 2023.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501>
- [31] Jeong MH, Seo YH, Moon HN,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Attitu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Vol. 17, No. 4, pp. 45-65, 2023. DOI:10.18015/edumca.17.4.202311.045

[32] Lee SY, Kim YY,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4, No. 3, pp. 309-318, 2016.

[33]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 for nursing.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Chicago. 2013. <http://www.ala.org/acrl/standards/nursing>.

※이 논문은 2024년 광주대학교 연구비 지원
으로 작성되었습니다.